

# 방심이 부르는 무서운 일들

중요한 테마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간의 등불>에서  
간질질환 중 너무 간경변에 치우쳐왔던 감이 있어  
이번에는 증례보고와 같은 이야기거리로 엮었습니다.  
이 글이 환우들과 일반인들 모두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회장(한국간협회 · 은명내과 원장)

## 첫 번째 이야기-무서운 선물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이 여행이 여행자의 잠시의 방심으로 무서운 선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S씨(23세)는 어느 무역상사의 사원입니다. 어느 해 여름 친구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1주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귀국 후 3주쯤 되었을 때, 전신권태, 38도의 열, 식욕부진 등 감기같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기치고는 기침도 콧물도 없고 권태감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회사 친구가 문병왔다가 눈의 흰자위가 노랗다고 지적해주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GOT, GPT 수치가 각각 2000이 넘었습니다. 바로 입원했는데, 증세는 악화되어 그 다음날 의식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간염 중에도 가장 위험한 극중간염이었습니다. 혈장교환(血漿交換) 등 여러 가지로 손을 써보았지만, 입원 후 10일째 되던 날 S씨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의 돌연사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혈청검사로 A형 간염이라 판명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마시는 물과 음식물은 주의를 했습니다만...' 이라고 하나 들은 바로는 출발 전에도 몇 일 동안 야간 잔무(殘務)로 시달렸고, 여행 중에도 젊은 혈기로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어패류를 날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어패류와 마신 물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A형 간염의 감염경로는 대변에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날 것이나 날물을 통해 입으로 침입하는 소위 '경구감염'입니다. 통상 A형 간염이 극중간염으로 진전되는 확률은 0.5~1.0%로 이 경우의 사망률은 80~90%에 달합니다. 보통의 A형 간염은 대부분 가벼운 황달이 나타날 정도이며 1개월 요양으로 완치됩니다.

## 두 번째 이야기 - 쾌락의 응보(應報)

A씨(30)는 광고대리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회사 동료와 같이 태국, 필리핀 등으로 1주간의 해외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2개월쯤 되어 몸이 피곤하고 37도 5부 정도의 비열이 있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의 피곤이 덜 풀려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피곤이 안 풀리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황달이 생기고 구역질도 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청검사를 받은 결과 GOT, GPT가 각각 600단위로 매우 높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지표가 되는 HBS항원(B형 간염 바이러스 표피 항원)도 양성으로 나와 급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아 당장 입원했습니다.

입원 며칠 후 황달도 소실되고 식욕도 회복되었습니다. '설마 그랬더니 역시 '그것'이 원인이었겠지' 하며 A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현지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지만 타액이나 체액으로도 감염될 때가 있고, 태국, 필리핀 등지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자가 많고 간염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외여행 때에는 즐기는 것 도 자중해야 될 것입니다.



간염이 된다든지 간장이 만성으로 장애를 받는 '만성 간염' 이 되기도 합니다.

T씨(45)는 증권회사 사원으로 직업상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T씨가 B형 간염의 캐리어란 진단을 받은 것은 25세 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였고, 그때는 충격을 받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가벼운 간염증상은 있었지만 특별한 증세는 없었고, 업무가 바쁘기도 하여 40세가 넘도록 자기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캐리어란 사실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식욕도 없어졌고, 상복부에 팽만감이 있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손으로 누르면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GOT, GPT 수치가 각각 200 단위 이상이고 가벼운 황달도 있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간조직 검사, 초음파, CT촬영, X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성 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T씨 뿐만 아니라 통상 캐리어의 경우 20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시절에 GOT, GPT의 수치가 높아지고 간염의 증세가 계속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각증세는 적고 간기능 검사에서 간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T씨와 같은 경우, 본인은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알고 일을 무리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성간염은 조금 무리한다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강하게 할 때, 몸 속의 바이러스가 고개를 들게 되고, 간염은 재발합니다. 그 재발을 예측할 수 없는 데에 만성간염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T씨는 가벼운 복수뿐이었고, 치료결과 비교적 쉽게 증세가 개선되어 2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 세 번째 이야기 - '캐리어'

간장병 전문의는 '캐리어'란 용어를 잘 사용합니다. '캐리어'란 바이러스 보유자를 말하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캐리어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유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가 있습니다. 감염되면 장기간에 걸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기의 몸 속에, 특히 간세포 속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캐리어라도 그 대부분은 증세가 가벼운 간염으로 끝나든지 또는 전혀 증세가 없는 무증후성 캐리어 상태로 일생을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일부는 급성

다. 현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도 순조롭습니다

### 네 번째 이야기 - 수혈의 재와(災禍)

S씨(50)는 은행의 중역입니다 은행에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25세 때, 위궤양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이 때 빈혈이 심해서 수혈을 받고 위의 2/3를 절제했습니다. 수술 후의 경과는 순조로웠고, 수혈 후 황달이 생긴 기억도 없습니다 그 후 25년간 큰 병 없이 일에 몰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종합검진 간 기능 검사결과, GOT, GPT의 수치가 각각 60단위로 좀 높고,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각증세도 없었기에 검사결과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골프를 마치고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식욕부진과 복부팽만감 등 병원에 가서 초음파, CT 촬영, X-선 촬영, 간조직 검사 등을 한 결과 25년 전 위궤양 수술 때 수혈한 것이 원인이 되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후 만성간염을 거쳐 간경변까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혈 후 간염'의 90% 이상이 C형 간염입니다. 그리고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간염입니다 S씨는 입원 후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2개월 후 퇴원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경과는 순조롭습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 술고래의 종말

K씨(44)는 가전제품(家電製品)회사의 영업사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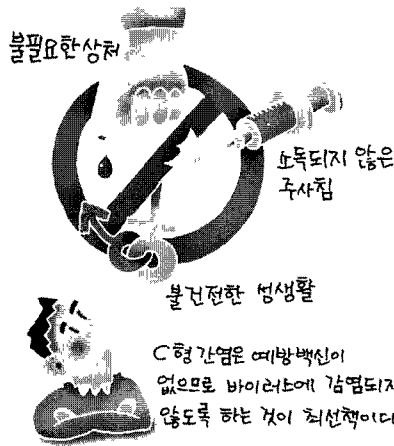
20세 때부터 주 1-2회 소주를 2홉 정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5세 이후는 사업상의 접대로 매일 밤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고, 주량도 늘어서 가끔 숙취(宿醉)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간장에 지방이 많이 침착되는 '지방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5세부터 매일 밤 위스키를 마시게 되어 처음에는 3분의 1병부터 이후 반병, 3분의 2병으로 점점 주량이 늘어갔습니다. 2년 후 전신권태증과 황달을 호소하고 입원했습니다. 간 조직 검사 결과 지방간에다 알코올성 간염이 합병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치료를 받고 5주 후에는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2개월간은 금주를 계속했으나 그 후 다시 전과 같이 마시기 시작하여 간장비대와 황달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44세 때, 배가 부르고 양쪽 다리에도 부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안간 대량의 피를 토하고 의식 불명으로 실려왔습니다. 입원 후 위내시경검사 결과 식도하부의 정맥류로부터 출혈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긴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으나 검사 결과 많이 진행된 간경변이었습니다. K씨는 2개월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후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 약제성 간염

C씨(60)는 장남 부부, 손주와 같이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4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잠이 안 온다' '몸이 나른하다' 등의 우울증 증세를 보였는데, 그 후 병원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일도 계속



하고 있었고, 술도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 매일 정중 2~3홉 정도를 계속해서 몇 년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기능 이상을 지적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990년 여름부터는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고, 마음도 커져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등 호언장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현재까지의 처방을 고쳐서 수면제와 더불어 항정신성약을 처방했습니다. 약 1개월 후 C씨는 '몸이 피곤하다' '목이 쉬다' '힘이 없다' '식욕이 없다' 등등을 호소하며, 이전 증세로 되돌아간 듯 활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사는 항정신성 약을 줄이고 위에 X-선 투시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했습니다. X-선 검사에는 이상이 없었고 간기능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치가 나타나서 3일 후 입원했습니다.

### C씨의 간기능검사의 경과

병명 정상치( )	1년 전	외래시	입원당일	제10병일	제20병일	퇴원 1개월 후
GOT (5-40)	19	137	165	41	20	23
GPT (5-35)	15	124	157	53	16	12
ALP (2.7-10)	7.4	181.8	190.7	107.5	50.3	9.7
γGTP(9-50)	24	1,476	1260	845	424	64
총빌리루빈(0.2-1.2)	0.33	1.5	1.57	0.56	0.47	0.47
콜레스테롤(130-260)	180	214	219	167	176	156

C씨는 열도 없고 발진도 없습니다. 황달은 눈이 흰자위에만 보여서 가벼웠고,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건강인처럼 보였습니다. 혈액검사로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견상으로는 간장이 나쁘다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다, 피곤하다'고 호소하여도 '우울증의 재발이겠지' 하는 정도로 항정신성약을 중지시키지는커녕 반대로 그 투여량을 늘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C씨의 외래 간기능 검사는 담도계 효소로 빌리루는 ALP(Alkaline phosphatase)가 181.8 KA 단위로 정상치의 20배 이상의 높은 수치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또 γGTP도 1,476의 이상 수치를 보인데 비

하여 총빌리루빈은 1.5mg/dl로 가벼운 상승에 그쳤고, 이 정도면 피부도 황색으로 착색은 되지 않습니다. 한편 GOT 137, GPT 124로 정상치의 3배 정도이지만, 담도계 효소(ALP, γGTP)같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로 볼 때, C씨의 간장은 간장에서 담즙의 배설이 장애를 받은 담즙울체형의 병태(病態)라고 보아야겠습니다. C씨의 연령이 60세로 암에 걸리기 쉬운 나이여서 초음파 검사로 췌장암이나 전이성 간암이 아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심 근심했습니다.

결국 간장내 담즙울체형 간염이란 진단이었고, 투약 변경 후 1개월 후에 간장아가 나타난 것으로 약제성 간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 처방된 약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원인으로 간장내의 모세담관 및 세담관의 담즙 배설 장애였습니다. C씨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항정신성의 복용을 중지한 후 간기능이 순조롭게 개선되어 3주 후에 퇴원했습니다.

### 일곱 번째 이야기 - 지방간

D씨(32)는 최근 수년간 매년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장애'를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각증세는 전혀 없었고, 시간 외 근무도 월 50시간 이상을 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술은 하루 맥주 1-2병 정도 체질적으로 건강했고, 수혈 경력이나 간염 경력 등도 없었습니다. 신장 162cm, 체중 65kg으로 보통 체격이었고, 금년 봄 결혼한 아내가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하고 당부하기 때문에 진찰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 후 간장기능 검사를 한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총 빌리루빈	0.75
총단백	8.0
알부민	3.7
콜린에스라제	133
GOT	71
GPT	110
ALP	7.1
γGTP	89
HBSAg	-
HBSAb	-

D씨의 검사결과는 지방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GOT, GPT가 약간 상승했으나 콜린에스테라제는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간염 등 다른 간질환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지방간만은 예외로 상승하는

**'캐리어'란 바이러스 보유자를 말하는데, 통상 캐리어의 경우 20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시절에 GOT, GPT의 수치가 높아지고 간염의 증세가 계속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간염은 조금 무리한다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강하게 할때, 몸 속의 바이러스가 고개를 들게 되고, 간염은 재발합니다.**

특이한 효소입니다

복부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장의 종래가 보이며 간장 전체가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영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지방간의 특징입니다. 비장의 종대는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항체는 각각 음성입니다. 수혈 경력이 없고, 비만이 있으며, 알코올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지방간'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확정진단을 위해 간 조직검사를 해보았는데, 조직학적 소견도 전형적인 '지방간'이었습니다. 지방간의 경우 일상생활의 제한은 필요치 않으나 골프 등 운동이 좋고, 단지 식사면에서는 만성간염과는 정반대로 당뇨병처럼 칼로리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간장병인데 잘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D씨는 60kg까지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알코올을 포함한 칼로리 제한이 지시되었습니다. 1일 단백질 90g, 지방 30g, 당분 150g, 합계 1200칼로리의 저칼로리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 담석에 의한 폐쇄성 황달**

E씨(76)는 1985년 병원에서 담석수술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1989년 6월경부터 웬일인지 월 1회 정도로 39도의 고열이 있었으나 다음 날에는 해열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 한밤에 상복부(명치)에 산

통(痲痛)이 있으면서 먹은 것을 토했습니다. 오후로 떨고 그 후 39도의 고열이 있었으며, 다음날 황달을 발견하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시 체온은 평열로 내려있었으나 상복부의 통증은 계속 되었고, 중등도의 황달도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확장된 총담관 내에 몇 개의 담석을 발견했는데, 바로 총담관 결석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었습니다. E씨의 간기능 검사치는 담도계 효소인 ALP,  $\gamma$ GTP의 수치가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촬영)라는 내시경에 의한 담도 조영에서 확장된 총담관 내에 4개의 담석이 확인되었고, 6개월경부터 계속되던 열은 결석에 의한 담관염이었습니다. 총담관 결석에 의한 황달은 없어졌다 나타났 다를 되풀이하면서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석으로 담관이 막히면 황달이 생기고, 담즙(膽汁)이 총담관에 가득하면 가벼운 결석이 떠올라 다시 담즙이 흘러나가면서 황달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총담관 결석은 만성간염의 재발(재연)에 의한 황달과의 감별이 어려운 때도 있지만 초음파 검사법의 보급으로 진단이 쉽게 되었습니다. 담석 대신에 종양, 특히 췌장암으로 인해 총담관이 막혀서 역시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는 때도 드물지 않게 경험합니다.

